

# 아 · 름 · 다 · 운 살 · 사람

/category/bosal.asp

현대불교 buddhanews.com

서기 2006년 5월 17일 수요일(주간) 제 578 호

17



## 12년간 명상반 지도 제천 봉양중학교 최시선 선생님

이제 갓 어린이터를 벗어난 중학생들이 하루 종일 '유쾌한 소음'을 뿜어내는 제천의 봉양중학교. 전교생이 120명에 불과한 이 학교는 수요일 오후 4시가 되면 어김없이 적막감에 싸인다. 나뭇잎만 깔려도 까르르 웃음을 터뜨린다는 이 아이들을 묵언으로 이끄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최시선(44) 선생님이 진행하는 요가명상반 수업이다.

5월 15일은 또한번 맞는 '스승의 날'이다. '스승의 날'에 언론매체들은 여러명의 훌륭한 선생님들을 발굴 소개한다.

17년째 교직생활을 하고 있는 최시선 교사도 이런 점에서 빠질 수 없는 선생님이다. 최 교사는 자신이 머무는 학교 어디에나 명상반을 개설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별명이 '최명상'일까. 하지만 '명상'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다소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를 생각했다면 오해. 자칫 지겨울 수 있는 윤리 과목을 맡고 있지만 최 교사에게선 '개구쟁이'의 모습마저 느껴진다. 봉양중학교를 찾은 5월 3일, 마침 윤리 과목의 인문학수업 순서로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 배우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부처님도 처음부터 성자(聖者)는 아니었어. 너희와 똑같은 고민을 하는 아이였던 시절도 있단다. 하지만 부처님은 끝없는 호기심으로 '나를 찾아 나섰고 마침내 '깨달은 이'가 되었단 거야."

1986년 해군으로 복무할 당시 우연히 군법당을 찾은 그는 한 권의 불서를 통해 불교에 입문하게 됐다. "홍법원에서 펴낸 <불교의 이해>라는 책이었을 겁니다. 책에는 그동안 제가 술한 밤을 새며 고민했던 것들에 대한 해답이 모두 담겨있었지요."

그렇게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최 교사는 군 전역 후 정주 관음사 청년회 활동을 하며 '청소년 포교'의 원력을 세우게 됐다. 교편을 잡고 있던 그로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아이들에게도 알려주자'는 소박한 바람에서 시작한 일이지만, 지금은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을 몸으로 깨닫고 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고민에 대한 답을 불교에서 찾는다면 방황하는 시간을 줄이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나 인터넷 등 화려한 볼거리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이, 바깥이 아닌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뜻에서 명상의 개념을 도입하게 된 것이죠."

95년 처음으로 자신이 근무하던 정주중고에 '명



최시선 교사가 지도하는 요가 명상반에서 아이들이 명상을 하는 모습.

상반'을 만들었다. 매주 <명상수련>이란 소식지도 만들어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나름의 문서포교를 시작한 것이다. 이 소식지의 내용은 이후 <청소년을 위한 명상이야기>(불광출판사로 발간됐고, 명상반을 지도하며 느꼈던 경험은 파라미터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되기도 했다.

"학생들은 불교나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고 지겨운 걸로만 생각해요. 하지만 마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명상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 일종의 화두를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직접 찾아보게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나를 살펴봐주도록 합니다."

실제 산만하고 말쑥꾸러기였던 아이가 명상을 통해 차분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명상의 효과에 대한 그의 믿음은 더욱 확고해졌다.

97년에는 파라미터 정주지회 회장을 맡으며 본격적인 청소년 포교에 나섰다. 당시만 해도 청소년 포교의 개념이나 필요성이 널리 퍼지지 않았던 터라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다. 당장 성과가 눈에 보이지도 않은 청소년 포교가 뭐 그리 중요하냐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일선 학교 선생님들에게 전화를 걸어 파라미터의 존재를 알렸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정주지회 발대식에는 600여 명의 학생과 선생님이 참석했다. 이후 공립학교 3곳에 파라미터를 조직했고, 청소년 어울림마당과 백일장, 봉

사활동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며 자신의 뜻을 차근차근 펼쳤다. 99년에는 지역사회의 청소년 포교 활동에 대한 공로로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이 수여하는 청소년부문 포교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명상과 함께 그가 아이들과의 소통 수단으로 선택한 것은 '글'이다. 그가 펴낸 두 권의 책 <학교로 간 부처>(시공사와 <소풍 즐기는 아이들>(아름다운인연)은 각각 불교와 인도를 아이들의 눈높이로 소개한 책이다.

"이름: 부처. 성격: 호기심 왕성함, 궁금한 것은 꼭 알아냄.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특히 주의를 기울임." 우수한 옛날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그의 글은 친근하다. "내가 아는 만큼이라도 아이들에게 전달하자. 대신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자"는 것이 최 교사의 뜻이기 때문이다.

"웃는 모습을 보세요. 그야말로 '생불(生佛)'이 아닙니까. 처음엔 말 안 듣는 아이에게 체벌을 가하기도 했지만, 한 생각만 바꾸니 달라졌습시다. 제 마음이 변하니가 대상도 변한다고나 할까요.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보면 바로 부처가 보입니다."

선생님이 되고 판사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결국은 부처가 될 가능성을 지닌 아이들.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대하다 보면 화낼 일도 없다.

수업시간에 쫓겨나 떠드는 아이를 봐도 야단을 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핀다. 최 교사는 이를 '내 마음 속에 잠시 머문다'고 표현했다. 그러다 보면 화가 가라앉고 '무엇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할까'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최근 제천으로 자리를 옮긴 후 파라미터 충북지부 제천지회 창립을 위해 힘써왔다. "좋아서 하는 일이라 힘든 줄 모르고" 추진해 온 일이지만, 불자 선생님을 찾아내고 그들을 청소년 포교의 도반으로 삼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6월 1일, 제천시민회관 광장에서 발대식을 여는 제천지회에 박수를 보내는 이유다.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 온 그를 남들은 '미쳤다'고 표현하지만 최 교사는 청소년 포교가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는 말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아이들에게 부처님의 진리와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 이미 아이들은 부처이고 제가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글=여수영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 ✓ 내면의 행복 찾아주고자 명상 도입
- ✓ 차분해진 아이들 보면 믿음 강해져
- ✓ 머무는 곳마다 파라미터 지회 창립
- ✓ 동화책 발간 등 문서 포교에도 앞장



한시도 가만있지 못하는 말쑥꾸러기들이지만 최 교사는 아이들의 눈에서 불성(佛性)을 읽는다. 그가 청소년 포교에 매진하는 이유다.

### 조계종 준중특별교구와 현대불교신문 공동 캠페인

## '2006 군포교 합시다'

# 찬불가 반주기 군법당에 보내기

우리의 불자 장병들이 활력 있고, 보람찬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합시다!!!  
군대에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장병들이 "찬불가-하나로반주기"로 찬불가를 배워 신행생활의 기쁨과 성불의 연을 맺게 합시다.

**언제 어디서나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과 이동이 간편합니다. 법회의 설비용 앰프로 사용이 가능하며, 군부대 위문 공연과 경로위안잔치 등 각종 사찰행사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교도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어린이도 찬불가 동요와 법회 의식곡 등을 쉽게 배울 수 있고 신도님들도 찬불가 가요를 송년회, 친목회, 지역법회 등의 다양한 포교활동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외행사에서도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간편한 이동과 고출력의 웅장한 사운드로 군법당이나 사찰의 야외 법회나 행사용으로 제격입니다.



모니터 발매

**■ 제품사양**

- 출력 : 100W+100W    소비전력 : 350W
- 입력전압 : AC 220V 전용 50/60Hz
- 사이즈 : 64.5(가로) x 67(세로) x 150(높이)cm  
\* 모니터 포함
- 모니터 21인치(완전 평면) 마이크로 27개(5m), 리모콘 포함
- 일반곡 23,000곡 이상 내장    \* 찬불가 120여곡 내장

현대불교와 풍경소리가 함께하는 "찬불가-하나로반주기" 보급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풍경소리에서 제작한 법회 의식곡 / 찬불가 가요 / 찬불가 동요 120여곡 추가 내장

찬불가 하나로반주기 구입 및 문의 02)2004-8207, 8210 (현대불교 영업2팀)